

# 온라인 게시판 토론에서 읽기, 쓰기, 그리고 의견 다양성의 효과\*

장윤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수료)

이은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온라인 토론의 효과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 읽기와 쓰기는 서로 다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읽기의 효과는 주로 이견 노출의 맥락에서 설명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본 논문은 의견의 다양성을 통제된 후에도 읽기와 쓰기가 서로 다른 효과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의견 다양성의 효과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지 이견 접근성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185명의 대학생을 온라인 게시판 토론에 참여케 하고, 의견 다양성이 높거나 낮은 조건에서 글을 읽거나 쓰게 한 후 이슈(사형제) 및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했다. 예측한 대로, 의견 다양성이 높은 조건의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의견의 양기성과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감이 높은 반면 반대론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낮았고, 편견에 미치는 의견 다양성의 효과를 이견 접근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읽기·쓰기와 의견 다양성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온라인 토론에서 의견 다양성이 높은 경우 쓰기에서도 읽기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읽거나 쓰기 행위 자체보다는 무엇을 읽고 쓰는지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Key words : 의견 다양성, 온라인 토론, 읽기, 쓰기, 속의 민주주의

---

\* 이 논문은 2009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arcus718@gmail.com

\*\*\* eunju0204@snu.ac.kr

인터넷이 공론의 장으로 주목받으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숙의적 토론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온라인 숙의 경험은 인지적 수준에서는 토론 참여자의 정치 지식과 의견의 질을 높이고(김동윤, 2007; Gastil & Dillard, 1999), 태도 수준에서는 참여자의 정치 효능감 및 관용과 대인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준웅·김은미, 2006; Fishkin & Luskin, 1999), 행동 수준에서는 시민 참여 및 정치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동윤, 2007; Min, 2007). 최근에는 특히 이견을 청취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예, Mutz, 2006; Price, Cappella, & Nir, 2002),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 표명, 즉 쓰기보다는 타인의 견해를 접하는 읽기가 훨씬 더 지배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김용석·홍석민, 2009. 1. 15; 김은미·이준웅, 2006) 이견 청취의 효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매우 타당하다 하겠다.

이견 읽기가 유발하는 효과에 주목한 연구들은 일정 부분 숙의적 토론에서 의견 표명(말하기 또는 쓰기)과 수용(듣기 또는 읽기)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오며, 토론의 긍정적 효과는 주로 수용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었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읽기와 쓰기가 서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론적 수준에서만만이 아니라(박승관, 2000),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김은미·이준웅, 2006; 백영민, 2005) 제시된 바 있다. 특히 김은미와 이준웅(2006)은 대규모의 현장 실험을 통해 온라인 게시판 토론에서 쓰기보다 읽기가 지배적인 활동 유형이며, 쓰기는 참여에 국한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효과를 갖지만, 읽기는 참여뿐 아니라 관용, 신뢰, 토론규범 준수 의사 등 시민적 덕성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들의 연구는 이후 온라인 참여에 관심을 둔 연구들의 초점이 말하기와 쓰기 모두를 포함하는 '참여'의 효과에서(예, 김유경, 2001; 윤영철, 2000) '읽기'의 효과로(예, 나은경·이강형·김현석, 2009; 양혜승, 2008; 이재신·이민영, 2008) 옮겨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숙의적 토론의 효과를 다룬 지금까지 연구들은 이처럼 읽기와 쓰기가 서로 다른 효과를 유발하며, 특히 읽기가 토론 참여자들에게 폭넓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그렇다면 읽기와 쓰기가 '왜' 서로 다른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읽거나 쓰는 행위 자체가 특정한 효과를 일으킨다기보다, 무엇을 읽고 쓰는지에 따라 읽기와 쓰기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요인을 통제했을 때 읽기와 쓰기 효과의 차이는 없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천착하였다.

이러한 추론은 일반적으로 읽는 내용과 쓰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전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같은 글만을 읽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선택적 노출 성향이 있다고는 하나, 동시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자신과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 글 또한 읽게 마련이다(Sears & Freedman, 1967). 하지만 글을 읽을 때와 달리 쓸 때는 주로 자신의 의견을 주로 적게 된다. 이처럼 읽기와 쓰기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의견의 다양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행위가 서로 다른 효과를 유발할 것일 수 있다.

만일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는 읽기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견에 대한 노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효과는 아마 읽기뿐 아니라 쓰기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즉 본인의 의견만

이 아니라 반대 주장까지 고려해 글을 쓴다면, 쓰기에서도 읽기가 유발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 본 연구는 의견 다양성을 통제된 후에도 읽기와 쓰기가 이슈 및 반대론자에 대한 태도에 서로 다른 효과를 유발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또, 이견이 유발하는 효과는 물리적 다양성이 아닌 인지적 다양성을 증가시킨 데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견 접근성(counter-attitudinal argument accessibility)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이견 접근성이 온라인 토론에서 다양성의 효과를 매개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 1. 읽기, 쓰기, 그리고 다양성의 효과에 대한 재해석

토론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기존 연구의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토론이라는 과정 전체를 독립변인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공적 숙의나 숙의적 토론, 토론 교육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의 상당수가 일정한 시공간적 범위 안에서 참여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위, 토론의 규칙을 준수하는 행위 등 일련의 요소들이 포함된 토론 참여 과정 전체를 일종의 실험 처치로 간주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는 방식을 취했다(예, Eveland Jr., 2004; Gastil & Dillard, 1999; Min, 2007; Price & Cappella, 2002).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토론이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다양한 견해에 노출된 데서 비롯된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토론 과정 전체가 유발하는 효과보다 이견 청취의 효과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토론 공간에서 자신과는 반대되는, 혹은 다양한 의견에 노출됨으로써 반대주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은 물론 본인의 주장도 정교해지고 관용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황현서, 2008. 6; Mutz, 2002; Price, et al., 2002).

숙의적 토론의 효과를 다룬 선행 연구들, 특히 이견 청취에 주목한 연구들은 수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표현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다른 효과를 유발한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토론 과정에서 발화자에게 생겨나는 효과에 주목한 핑그리(Pingree, 2007)는 의견 표명이 예상될 때(expectation effect)나 메시지를 작성할 때(composition effects),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공표할 때(message release effects) 메시지 노출의 효과와 구별되는 소위 '발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토론과 같이 자기 주장의 근거까지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한층 뚜렷한 발화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설명했다. 왜 뉴스 보도 내용에 대한 토론이 정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 이블랜드(Eveland Jr, 2004)의 연구에서도 단순한 노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토론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토론을 수행하여 인지 정교화 수준이 높아진 경우 정치 지식이 증가해, 의견을 청취할 때와 표명할 때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국내에서 읽기와 쓰기가 서로 다른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백영민(2005)의 연구에서 표현 커뮤니케이션인 쓰기는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진실성 및 커뮤니케이션 효능성과, 수용적 커뮤니케이션인 읽기는 신뢰, 관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김은미와 이준웅(2006)은 17대 총선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총선 핫 이슈 토론광장'에서 수집한 토론 자료를 분석해, 글을 많이 쓸수록 정치 참여 의사가 높은 반면, 많이 읽을수록 토론규범 준수, 관용, 정치참여 등이 두루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나은경·이강형·김현석(2009)은 인터넷 뉴스에서 댓글 읽기가 정치 지식과, 댓글 쓰기가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발견했다. 쓰기와의 비교 연구는 아니지만, 송현주·신승민·박승관(2006) 역시 온라인 게시판에서 이견을 읽는 경험이 자신과 타인의 견해에 대한 논변 구성을 증가시키며, 타인의 견해에 대한 논변 구성의 증가는 정치적 관용과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제시했다.

기존의 논의와 실증적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쓰거나 말하기와 같은 표현 커뮤니케이션은 본인의 의견 및 자신감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증가시키는 반면, 읽기는 반대 의견에 대한 이해 및 정치 지식 수준을 높이고 본인의 의견을 정교화시키며, 토론규범 준수, 관용, 신뢰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쓰기는 의견화된(opinionated) 시민을, 읽기는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harmonious) 시민을 길러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온라인 토론에서 읽기와 쓰기가 서로 다른 효과를 유발한다면 그것은 왜인가? 읽기와 쓰기의 발생적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김은미·이준웅, 2006) 그러한가? 아니면 읽기, 쓰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읽기, 쓰기와 결합되는 여타의 조건들이 차이를 유발한 것인가?

선행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읽기·쓰기 효과의 차이나(쓰기 효과와는 구별되는) 읽기의 효과를 제시한 연구들은 주로 읽기와 쓰기를 자기기입식 문항을 이용해 측정했다(예, 나은경·이강형·김현석, 2009; 백영민, 2005; 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따라서 이 연구들이 제시한 결과는 읽고 쓰는 경험만이 아니라 읽기·쓰기의 빈도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읽거나 쓰기에 대한 선호 경향, 혹은 읽기·쓰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같은 여타 변인의 효과가 혼재된 것일 수 있다. 예외적으로 김은미·이준웅(2006)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게시판에 글을 읽고 쓴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 두 행위의 효과를 비교했는데, 이 경우 전적으로 실험 참가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참여 행위의 양식(읽기 vs. 쓰기) 및 빈도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가 많이 읽고 쓰는 자들의 선유성향과 시민성간의 상관을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읽기와 쓰기의 효과를 보여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읽는 내용과 쓰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자신과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 글 또한 읽게 마련이지만(Sears & Freedman, 1967), 쓸 때는 주로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읽기와 쓰기 효과의 차이는 읽거나 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읽거나 쓴 내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읽기의 긍정적인 효과는 ‘읽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

만일 읽기의 효과가 단지 읽는다는 행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다양한 견해를 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효과는 쓰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반대 주장을 고려해 글을 쓰도록 한다면 쓰기에서도 읽기의 경우처럼 이슈에 대한 의견의 극단성이 감소하고, 자신과는 다른 주장에도 동조하며, 반대론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의견 다양성이 이슈 및 반대론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 연구가설 1(a-d) : 온라인 게시판 토론에서 의견 다양성은 (a) 이슈에 대한 의견의 극단성과 (b) 반대론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반면, (c) 의견의 양가성과 (d)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다양성의 효과가 읽기와 쓰기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글을 읽을 때 반대의견을 접하게 되면, 독자는 그 주장을 기각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글을 쓸 때 반대 의견은 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쓰는 과정에서 이견을 고려한다고 해도 읽기에서처럼 반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다듬고 반대론자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토론에 참여하면 반대의견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방어함으로써 의견에 대한 확신(certainty) 정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Gastil & Dillard, 1999). 또, 글쓰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인 반면 읽기는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과정이다. 즉, 반대 주장을 담은 글을 읽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나 논거를 접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글을 쓸 때는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아마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반대 의견에 대한 논거만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쓰기에서도 읽기와 동일한 정도로 다양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쓰기보다 읽기에서 의견 다양성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의견 다양성이 이슈 및 반대론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읽기와 쓰기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 연구문제 1(a-d) : 의견 다양성이 온라인 게시판 토론 참여자들의 (a) 의견 극단성과 (b) 반대론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c) 의견의 양가성과 (d)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효과는 쓰기보다 읽기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가?

## 2. 이견 접근성: 의견 다양성이 유발하는 효과의 매개요인

의견 다양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신과 상반되는 견해에 노출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근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토론 과정에서 경험하는 의견의 다양성이 '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Pingree, 2007). 이와 관련해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물리적 차원의 다양성보다 인지적 차원의 다양성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연결망 내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정치 지식, 의견의 정교성, 반론에 대한 이해, 참여가 증가하기도 하지만(Mutz, 2006; Price, et al., 2002), 이질적인 집단의 존재 자체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 참여가 감소할 수도 있다(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44; Mutz, 2002, 2006). 하지만 이견이나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는 경험은 정치지식, 의견의 질, 논변구성, 반대 의견에 대한 이해, 관용, 신뢰, 시민참여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동윤, 2007; 김은미·이준용, 2006; 나은경, 2007; 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Mutz, 2006; Price, et al., 2002).

즉, 기존의 연구들은 자신과 직업, 출신지역, 학력, 인종 등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과 다른 특성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의견 다양성이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견이나 다양한 관점에 노출됨으로써 인지적 차원의 다양성이 증가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토론 과정에서 의견의 다양성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견에 대한 접근성(counter-attitudinal argument accessibility)을 높임으로써 의견의 극단성을 낮추고 반대 의견을 인정하게 하며, 반대론자에게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접근성은 심리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점화(priming)의 핵심 개념이다. 점화는 선행 자극(prime)이 새로운 자극(target)에 대한 반응이나 후속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맥락적 정보가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사람들은 정보를 처리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련 기억을 모두 꺼내 사용하지 않는다. 주어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 즉 가장 접근 가능한(accessible) 기억 정보를 추출해 후속 인지 과정에 활용하게 된다. 인지처리모형에서는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우선 가용한(available) 기억정보, 즉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자극이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지식이나 기억 정보 가운데 자극과 관련성이 높은(applicable) 기억이 선택적으로 활성화된다(activated).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된 기억은 뒤따르는 다른 인지과정, 예컨대 의사결정이나 판단 등에 의해 접근 가능해졌다고(accessible) 할 수 있다(Hwang, Gotlieb, Nah, & McLeod, 2007). 이와 같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념들이 얼마나 쉽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즉 특정 개념이나 정보를 얼마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접근성이다.

접근성은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최소한의 인지 자원을 활용해 빠른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Fiske, 1992; Tversky & Kahneman, 1974). 그러므로 어떤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그가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불변의 믿음이기보다 질문이 주어진 순간에 가장 접근 가능한 기억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보 처리의 결과일 수 있다(Fazio & Williams, 1986; Oskamp & Schultz, 2005). 프라이밍, 틀짓기, 의제설정과 같은 사회인지적 매체효과에 관한 이론들은 결국 매체가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후의 태도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이론들은 매체가 어떤 이슈의 현저성(salience)을 높임으로써 유사한 정치적 판단을 할 때 보다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준다는, 태도 접근성에 관한 이론인 것이다(Scheufele & Tewksbury, 2007).

어떤 기억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는가에 따라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면, 온라인 토론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견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경우 양가성(ambivalence)이 높아져 정치 참여나 의견화의 정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관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Mutz, 2002, 2006), 이러한 효과는 이견 접근성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만일 공적 사안에 대해 자신이 지지하는 한쪽의 의견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는 평소에 반대 의견도 두루 접했다면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찬반 양론이 모두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이견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의사결정에 찬반 양론을 모두 고려하게 되어 의견이 극단화되는 경향이 감소하고 반대로 반대론자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견이 이슈 및 반대론자에 대한 토론 참여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이견 접근성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 연구가설2(a~d): 의견 다양성은 이견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이견 접근성이 높아지면 토론 참여자들의 (a) 의견 극단성과 (b) 반대론자에 대한 편견은 감소하는 반면, (c) 의견의 양가성과 (d)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은 증가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서울 소재 대학의 학부 재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2(토론 참여 방식: 읽기 vs. 쓰기) × 2(의견 다양성: 높음 vs. 낮음) 요인설계를 적용한 실험을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남학생이 102명(55.14%), 여학생이 83(44.86%)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86세(SD = 2.77)였다.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각 강좌에서 보너스 점수를 부여했다. 토론의 주제는 (1) 실험 참여자들이 사안의 찬반 논거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쓰기 집단의 처치가 가능하므로 가능한 널리

알려진 이슈일 것, (2) 의견 다양성에 따른 이슈 및 반대론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피험자들의 관여도가 낮을 것, (3)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쟁적 이슈일 것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가장 근접한 이슈를 선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실험에 앞서 같은 학교의 학부 재학생 27명에게 포털 사이트에서 관심을 모은 논제 9가지(캠퍼스 상업화, 인터넷 실명제, CCTV 설치, 서머타임, 낙태, 존엄사, 사형제, 초중고 학력평가, 교사 근무시간)를 제시하고 의견 분포와 관여도<sup>1)</sup>를 조사해, 사형제를 게시판 토론 주제로 사용했다(사형제 시행 찬성:반대=14:13, 관여도  $M = 5.25$ ,  $SD = 1.84$ ).

### 1) 실험절차

실험 참여 학생들은 사전에 참석 시간을 예약한 뒤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을 방문했다. 실험에 대해 안내를 받고 참여에 동의하면, 학생들은 네 개의 실험조건 가운데 한 집단에 자동으로 할당되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이슈에 대한 의견 및 기타 통제변인들을 측정하는 설문 실시했다. 한쪽 분량의 설문지에는 사형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 이슈에 대한 관여도와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지식, 그리고 매체 이용 정도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됐다. 설문 응답 후 실험 참가자들은 할당된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의 안내문을 읽고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이용했다. 토론 게시판 화면에는 토론의 주제와 그에 대한 설명이 덧붙은 타이틀 이미지가 상단에 제시되고 그 아래에 실험 조건별 안내문과 함께 게시글 목록이나 글쓰기 화면이 출력되었다. 토론게시판의 외관은 댓글이 아닌 게시글 토론의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야후! 코리아>의 <토론마당>에서 캡처한 스크린샷을 이용했다. 실험 후 참여자들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이견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장 반응시간 검사에 응했다. 이어 사형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반대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공감, 편견 등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했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성별을 입력한 후 실험을 종료했다.

### 2) 실험처치

임기조건의 참여자들은 “이제 다음 화면에서 포털 사이트 야후! 코리아의 주제별 토론 게시판 가운데 사형제 존폐에 대한 토론 게시판을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목록에서 관심있는 글들을 선택해 주의깊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6개의 게시글을 읽은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며, 관련 퀴즈가 제시됩니다”라는 안내문을 읽은 후, 각 조건에 맞는 6개의 게시글을 읽었다(의견 다양성이 높은 조건: 본인과 같은 입장의 게시글 3건+반대 입장의 글 3건, 다양성 낮은 조건: 본인과 같은 입장의 게시글 3건+중립적인 글 3). 이를 위해 실험 페이지에는 게시물 목록을 제시하

1) “이 문제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매우 관련이 있다”, “나는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매우 관심이 많다”, “이 문제는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는 문항을 제시하고 리커트 10점 척도상에 응답케 하였음(Cronbach's  $\alpha = .76$ ).



〈표 1〉 읽기 조건에 제시한 논조별 게시글의 제목, 내용 사례와 글의 분량

논 조	게시글 제목, 내용의 예	
사형제 찬성 (1,454자)	제목	사형제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 누구의 인권을 보호한단말이나
	내용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잔인하다고 하는데, 사형은 어디까지나 형벌이라는걸 알아야한다. 사인간의 살인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개인의 생명권을 국가가 빼앗는다고 하지 말라..... 지난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어 현재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하지. 이걸 착용한이후 성폭력이 감소했다는거 알고있는거냐..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
사형제 반대 (1,458자)	제목	살인과 사형, 피와 분노의 악순환 사형제도 찬성하는 머저리들은 봐라
	내용	인간이 목숨만 부지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 거다. 만일 응당한 처벌의 시간 없이 순식간에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범죄자는..... 너의 차유리를 깨면 차유리값 물어주어서 고치면 서로 좋지. 니차유리 깬다고 내차유리도 같이 깨야 공평한거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를 피로 씻는 것과 같다.....
중립 (1,454자)	제목	한번더 심사숙고하고 얘기하라 뭘 알고나 떠드는 건지 모르겠군
	내용	내가보기에 사형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같다. "저런 나쁜놈은 죽어야지" -- "그래도 죽이는 건 아니다", "니 엄마가 살해당하면 어쩔래?" -- "그딴소리 지껄이지 마라"..... 사형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어론조사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사형제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가 없었을때 해야 제대로된 의견들을 들을수 있는것이여.....

고, 참여자들이 제목을 클릭해 게시글을 읽도록 했다. 실제 야후 토론마당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게시물 목록에는 총 20개의 게시글 제목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4건은 삭제된 게시물로 표시했다. 참여자들에게 6개의 글을 읽도록 한 데 반해 클릭할 수 있는 게시글 제목은 16개이므로, 게시글 제목과 내용간의 불일치를 피하는 동시에 어떤 제목을 클릭하는지에 관계없이 실험조건별로 모든 피험자들이 동일한 메시지에 노출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즉, 3건은 피험자 본인과 같은 의견을 드러내는 제목, 나머지 13건은 찬반 입장을 알기 어려운 중립적인 제목으로 조작하고, 자신과 같은 의견을 드러내는 제목을 클릭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같은 입장의 글이 출력되도록 했다. 같은 입장의 글 3건을 모두 읽은 뒤, 중립적인 제목을 클릭하는 경우에는 실험 조건에 따라 반대 입장의 글(의견 다양성이 높은 조건)이나 중립적인 글(의견 다양성이 낮은 조건)이 출력되도록 했다. 같은 의견을 드러내는 제목을 3건 미만으로 선택한 후 중립적인 제목을 클릭했을 때에는, 실험조건에 따라 반대 혹은 중립적인 글을 먼저 3건 보여준 뒤, 같은 입장의 글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쓰기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토론 게시판에 자신의 견해를 담은 글을 쓰도록 했다. 모든 조건에 “이제 다음 화면에서 포털 사이트 야후! 코리아의 주제별 토론 게시판 가운데 사형제 존폐에 대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게시판에 새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라고 안내한 후, 의견 다

양성이 높은 조건에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글을 쓰되,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의견 다양성이 낮은 조건에는 “사형제 존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쓰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도록 했다.

### 3) 측정척도 구성

이견 접근성. 접근성 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응시간 검사를 사용하되, 찬반 주장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단어가 아닌 문장을 제시하고 논조를 판단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다. 이를 위해 서버에서 해당 페이지가 로드된 순간부터 응답을 클릭하기까지의 시간을 추출하는 Java 함수를 사용해 반응시간을 1천분의 1초(millisecond) 단위로 기록했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글을 쓴 사람이 사형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가능한 한 빨리 맞춰주세요”라고 안내한 후, “난 악랄한 살인마들을 입히고 먹이기 위해 세금을 낼 생각은 없다”, “사형제는 개인의 보복을 막고 사회와 제도가 개인을 대신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이상 사형제 찬성)”, “사형제와 범죄 예방은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미 전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다(이상 사형제 폐지)”는 4개 문장을 제시하고, 각 문장별로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사형제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것 같다/존치를 주장하는 것 같다”는 이항척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도록 했다. 이 문장들이 검사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한 대학의 학부 재학생 47명에게 이 문장들이 사형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인다고 생각되는지 응답하게 한 결과(“이 문장을 쓴 사람은 사형제에...”: 1=적극 반대하는 것 같다, 6=적극 찬성하는 것 같다), 사형제 찬성 문장( $M = 4.99, SD = 1.01$ )과 반대 문장( $M = 1.90, SD = .67$ )을 뚜렷하게 구분해 인식하고 있었다( $F = 387.09, p < .001, \eta_p^2 = .89$ ). 최종적으로, 자신과 같은 의견을 표현한 문장의 논조 응답시간에서 반대 의견 문장의 논조 응답시간을 뺀 값을 구해 이견 접근성 점수로 사용했다( $M = .93, SD = 3.96, \min = -8.98, \max = 9.59$ ). 반대 의견에 대한 응답 시간이 짧을수록 이 값이 커지므로, 값이 클수록 이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슈에 대한 태도. 의견의 극단성과 양가성으로 구분해 측정했다. 일반적으로 의견의 극단성은 척도의 중간값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를 점수화해 사용한다(Krosnick & Smith, 1994). 이 실험에서는 실험 후에 “사형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1=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6=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라고 묻고, 중간값으로부터의 차이의 절대값을 구해 사용했다( $M = 1.24, SD = .65, \min = .50, \max = 2.50$ ). 이 값이 클수록 의견이 더 극단적임을 의미한다.

의견의 양가성은 찬반 혹은 호불호 양측의 태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그 두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한다(Mutz, 2006; Tormala & DeSensi, 2008). 이 실험에서는 실험 처치 후 “당신은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사형제 존치의 근거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의 두 문장을 제시하고 동의

정도를 응답하게 하고(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전적으로 동의한다), 반대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같은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뺀 값을 구해 사용했다( $M = -1.11$ ,  $SD = 1.36$ ,  $\min = -5$ ,  $\max = 3$ ). 이 값이 클수록 의견이 양가적임을, 작을수록 태도가 본인의 주장으로 치우쳐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론자에 대한 태도, 공감과 편견을 측정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상대의 기분을 알거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Davis(1983) 및 Batson과 동료들(Batson, et al., 1997)의 척도를 활용해, 반대론자들에 대해 “어떤 마음인지 알 것도 같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그 사람들 같았던 적이 있다”는 3개 문항에 대해 동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고(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 이들 문항의 평균을 구해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 점수로 사용했다( $\alpha = .62$ ,  $M = 4.10$ ,  $SD = .90$ ).

반대론자에 대한 편견 측정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언론정보학 전공 대학원생 1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해 사형제와 관련해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 즉 본인이 존치론자인 경우 폐지론자에 대해, 폐지론자인 경우 존치론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 응답식으로 적게 해 61개의 응답을 수집했다. 예비조사에서 제시된 단어들 가운데 쌍방이 반대론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한 인상은 “단순하다”, “감정적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비논리적이다”의 4개 문항이었다. 따라서 이 네 문항을 사용해 반대론자에 대한 편견을 측정했다. 이들 문항에 대해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게 했으며, 평균을 구해 사용했다( $\alpha = .86$ ,  $M = 2.44$ ,  $SD = 1.07$ ). 점수가 높을수록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인 및 기타. 읽기 집단의 실험 처치를 위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측정했다. “최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면서 사형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형제에 대해 평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6점척도(1=폐지해야 한다, 6=존치해야 한다)에 응답케 했다( $M = 3.95$ ,  $SD = 1.70$ ). 이 응답을 이용해 실험 전 의견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의견의 극단성 점수를 구한 뒤, 이후 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했다( $M = 1.61$ ,  $SD = .71$ ).

이전 접근성 및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관련 지식, 이슈 관여도, 평소의 게시판 이용 정도를 통제하기 위해 이를 사전에 측정했다. 사형제와 관련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사형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사형제 폐지론 및 존치론의 근거를 1(전혀 모른다)부터 6(잘 알고 있다) 사이에 응답하도록 하고 평균을 구했다( $M = 4.16$ ,  $SD = 1.01$ ,  $r = .88$ ,  $p < .001$ ).

이슈 관여도는 “사형제 존치 및 폐지 문제는 당신과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관련성(사형제 존·폐지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매우 관련이 있다), 관심(나는 사형제 존·폐지에 전혀 관심이 없다~매우 관심이 있다), 중요성(사형제 존·폐지는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의 세 가지를 6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세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구해 관여도 점수로 사용했으며( $M = 3.52$ ,  $SD = 1.06$ ), 문항간 신뢰도  $\alpha = .85$ 였다.

평소 토론게시판 이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평소 포털 사이트의 토론게시판(예, 네이버 토론장, 다음 아고라, 야후 토론마당, 싸이월드 광장 등)을 얼마나 이용하는 편입니

까?”라고 묻고 게시글 읽기, 게시글 쓰기, 토론글에 달린 댓글 읽기, 토론글에 댓글 쓰기 총 4개 항목에 대해 1(전혀 읽어본/써본 적 없다)에서 6(자주 읽는다/쓴다) 사이에 응답하게 했다. 게시글 읽기와 댓글 읽기의 평균을 게시판 읽기( $M = 3.72$ ,  $SD = 1.38$ ,  $r = .77$ ,  $p < .001$ ) 점수로, 게시글 쓰기와 댓글 쓰기의 평균을 구해 게시판 쓰기( $M = 1.74$ ,  $SD = .92$ ,  $r = .73$ ,  $p < .001$ ) 점수로 사용했다.

## 4. 결과

### 1) 조작화 검증

읽기 조건에는 본인과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게시글과 함께 본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글 혹은 중립적인 글을 읽도록 하였으므로, 조작화 검증을 위해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게시글 제목과 내용의 논조를 의도한 대로 지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험을 실시한 대학의 학부 재학생 17명에게 실험에 사용한 모든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을 읽고 각각의 글과 제목이 사형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응답하게 했다(“이 글을 쓴 사람은 사형제 실시에...”: 1=적극 반대하는 것 같다, 7=적극 찬성하는 것 같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사형제 실시에 찬성하는 게시글 3건( $M = 6.41$ ,  $SD = .53$ ), 반대하는 게시글 3건( $M = 1.96$ ,  $SD = .53$ ), 중립적인 게시글 3건( $M = 3.88$ ,  $SD = .55$ )의 논조를 모두 연구자가 의도한대로 지각하고 있었다.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F = 402.61$ ,  $p < .001$ ,  $\eta_p^2 = .96$ ). 사후분석(LSD)에서도, 사형제 찬성 게시글과 중립적인 게시글의 논조(평균차 2.53,  $SE = .17$ ,  $p < .001$ ), 그리고 중립적인 게시글과 사형제에 반대하는 게시글의 논조(평균차 2.29,  $SE = .15$ ,  $p < .001$ )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게시글 제목 역시, 사형제 찬성 논조의 제목 3건( $M = 6.35$ ,  $SD = .62$ ), 반대 논조의 제목 3건( $M = 1.53$ ,  $SD = .51$ ), 중립적 논조의 제목 13건( $M = 3.82$ ,  $SD = .43$ ) 모두에 대해 의도한 대로 논조를 인식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응답한 조건별 논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F = 282.56$ ,  $p < .001$ ,  $\eta_p^2 = .95$ ). 사후분석(LSD) 결과, 사형제 찬성 게시글의 제목과 중립적인 게시글 제목의 논조(평균차 2.53,  $SE = .20$ ,  $p < .001$ ), 그리고 중립적인 게시글의 제목과 사형제에 반대하는 게시글 제목 사이의 논조(평균차 1.92,  $SE = .14$ ,  $p < .001$ )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쓰기집단의 실험 처치가 의도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참여자들이 작성한 글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사형제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주장 혹은 근거를 담고 있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 즉 의미단위(thematic unit)를 분석 단위로 삼았으며, 각각의 실험 참여자가 작성한 글에 대해 사형제 존치 및 폐지 주장을 담고 있는 분석단위 수와 글 전체에서 제시한 사형제 존치 및 폐지 근거 수를 확인했다. 한 편의 기사나 글을 단위로 하는 경우

보다 분석이 복잡하므로,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언론정보학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코더 2명을 고용해 자료 전수를 대상으로 복수 코딩을 실시했다. 코더간 단순일치도는 사형제 존치 주장에 대한 주장의 수에서 74.7%, 근거 수에 대해서는 75.8%였고, 사형제 폐지 주장의 수에 대해서는 82.4%, 폐지 근거 수에 대해서는 85.7%였다. 이 분석에서는 의미 단위별로 주장과 근거의 수를 파악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는데,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거로 사용되었는지, 근거가 없는 단순한 주장인지, 혹은 사실의 기술에 불과한지에 대해 독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의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주장과 근거의 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 코더 간 단순일치도가 74%를 상회한다는 것은 낮은 수치라 할 수 없다.

각각의 글에 포함된 주장과 근거의 수를 실험 참여자 본인과 같은 의견 및 반대 의견에 대한 주장/근거 수로 변환해 집단 비교를 실시한 결과, 자기 의견을 제시한 횟수나 근거 수는 의견 다양성이 높은 집단(주장 3.89회, 근거 2.38개) 낮은 집단(주장 3.72회, 근거 2.34개)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모든  $|t| < .35$ ). 하지만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 및 근거는 의견 다양성이 높은 집단이(주장 2.15회, 근거 1.82개) 반대 집단(주장 1.01회, 근거 1.19개)에 비해 더 자주 제시했다(모든  $|t| > 3.0$ , 모든  $p < .01$ ). 따라서 쓰기 집단에서도 실험처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결과

실험에 사용한 주요 변인의 집단별 기술통계치를 <표 2>에 제시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 토론에서 의견 다양성이 글을 읽을 때뿐 아니라 쓸 때에도 (a) 이슈에 대한 의견의 극단성과 (b) 반대론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반면, (c) 의견의 양가성과 (d)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을 증가시키는지(<연구가설1>), 그리고 그 효과가 쓰기보다 읽기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연구문제1>) 확인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실험 전에 측정된 변인들 가운데 평소 게시판 읽기 정도(의견 극단성과  $r = .15$ ,  $p = .04$ ), 이슈에 대한 지식(의견 극단성과  $r = .18$ ,  $p = .02$ , 공감과  $r = .16$ ,  $p = .03$ ), 이슈 관여도(의견 극단성과  $r = .24$ ,  $p = .001$ )가 종속변인과 상관을 보였고, 의견 극단성이 반복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이 네 가지 변인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 가운데 의견의 극단성과 양가성( $r = -.35$ ,  $p < .001$ ), 의견의 양가성과 공감( $r = .36$ ,  $p < .001$ ), 그리고 양가성과 편견( $r = -.23$ ,  $p < .01$ )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므로 가설 검증에 다변인 공변량분석(MANCOVA)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에도 의견의 다양성이 이슈 및 반대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Wilks'  $\lambda = .95$ ,  $p = .03$ , one-tailed). 구체적으로, 이견을 고려해 글을 읽거나 쓴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보다 이슈에 대해 더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고( $F = 7.65$ ,  $p = .003$ ,  $\eta_p^2 = .04$ ), 반대론자에게 더 공감한 반면( $F = 3.44$ ,  $p = .03$ ,  $\eta_p^2 = .02$ ) 편견은 덜한 것으로( $F = 2.73$ ,  $p = .05$ ,  $\eta_p^2 = .02$ ) 나타났다. 즉, 연구가설 1(a)는 기각되고, 1(b), 1(c), 1(d)는 검증되었다.

하지만 읽기, 쓰기집단과 의견 다양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Wilks'  $\lambda = .98, p = .28$ ). 이처럼 다양성의 주효과는 존재하지만 다양성과 참여양식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토론 참여자들이 읽는가 쓰는가에 관계없이 의견 다양성이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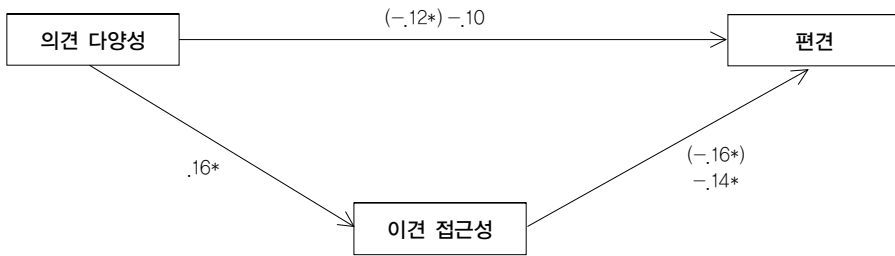
〈표 2〉 주요 변인의 집단별 기술통계치

	게시판 토론 참여 양식				의견 다양성			
	읽기 (N=94)		쓰기 (N=91)		높음 (N=93)		낮음 (N=92)	
	M	SD	M	SD	M	SD	M	SD
이견접근성	.86	3.99	.99	3.94	1.56	3.93	.28	3.90
극단성	1.17	.61	1.30	.69	1.23	.68	1.23	.63
양가성	-1.04	1.20	-1.18	1.50	-.89	1.49	-1.33	1.18
공감	4.05	.80	4.15	1.00	4.21	.89	3.99	.90
편견	2.43	1.04	2.45	1.11	2.32	1.07	2.57	1.06

〈표 3〉 읽기, 쓰기와 의견 다양성이 토론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sup>1)</sup>

변산원	SS	df	MS	F
종속변인: 극단성				
읽기 vs. 쓰기 효과 (A)	1.01	1	1.01	3.38*
의견 다양성의 효과 (B)	.05	1	.05	.18
A × B	.11	1	.11	.38
오차항	53.03	177	.30	
종속변인: 양가성				
읽기 vs. 쓰기 효과 (A)	2.20	1	2.20	1.35
의견 다양성의 효과 (B)	12.46	1	12.46	7.65**
A × B	3.26	1	3.26	2.00
오차항	288.20	177	1.63	
종속변인: 공감				
읽기 vs. 쓰기 효과 (A)	.16	1	.16	.20
의견 다양성의 효과 (B)	2.71	1	2.71	3.44*
A × B	.43	1	.43	.55
오차항	139.37	177	.79	
종속변인: 편견				
읽기 vs. 쓰기 효과 (A)	.01	1	.01	.01
의견 다양성의 효과 (B)	3.14	1	3.14	2.73*
A × B	.07	1	.07	.06
오차항	203.73	177	1.15	

1) 공변인으로 평소 게시판 읽기 정도, 이슈 관련 지식, 이슈관여도, 의견극단성(사전측정치)을 통제하였음  
\*  $p < .05$ , \*\* $p < .01$  (단측검정)



〈그림 1〉 이전 접근성의 매개모형 검증 결과

론 참여자의 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의견 극단성에 국한되었지만, 읽기와 쓰기에 의한 주효과도 나타났는데, 쓰기 집단의 참여자들이 읽기 집단 참여자들에 비해 이슈에 대해 더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다 ( $F = 3.38, p = .04$ ).

〈연구가설 2〉는 이전 접근성이 의견 다양성의 효과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견 다양성의 효과가 나타난 의견의 양가성과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 편견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연구가설1〉 및 〈연구문제1〉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균의 읽기 정도, 이슈 관련 지식, 이슈관여도, 그리고 의견 극단성의 사전조사 점수를 통제했다. 분석 결과, 〈연구가설2(b)〉가 검증되어, 이전 접근성이 반대론자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의견 다양성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우선, 의견의 다양성은 반대론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beta = -.12, t = -1.66, p = .05$ ) 이전 접근성은 증가시켰으며( $\beta = .16, t = 2.16, p = .02$ ), 이전 접근성은 편견을 감소시켰다( $\beta = -.16, t = -2.14, p = .02$ ). 의견 다양성을 편견의 예측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에 이전 접근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자  $R^2 = .05, \Delta R^2 = .02, F_{\text{change}}(1, 179) = 4.07, p = .03$ 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때, 의견 다양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beta = -.10$ ) 이전 접근성은 여전히 편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eta = -.14, t = -1.91, p = .03$ ). 이상의 결과는, 의견 다양성이 이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반대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의견의 양가성과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는 매개모형이 검증되지 않았다. 의견 다양성은 양가성과( $\beta = .19, t = 2.71, p = .004$ ), 이전 접근성을 증가시키지만, 이전 접근성이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 .01$ ). 또, 의견 다양성은 반대자에 대한 공감과( $\beta = .14, t = 1.86, p = .03$ ) 이전 접근성을 증가시키지만, 이전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반대자에 대한 공감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9, t = -2.65, p = .01$ ).

## 5. 논의

### 1) 온라인 토론 효과의 재발견: 이론적, 교육적 함의

연구 결과, 토론 참여 시 이견을 읽거나 이견을 고려해 글을 쓴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에 비해 의견의 양가성과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은 더 높고, 반대론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견 다양성이 높을수록 토론 참여자들은 본인의 주장뿐 아니라 본인과 반대되는 의견 역시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반대 의견을 포함해 글을 읽거나 쓰면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왜 그런 의견을 갖는지에 대해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반대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견이 양가적일수록 극단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극단성에 대한 의견 다양성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의견의 극단성은 이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얼마나 극단적인가를 보여주는 점수라면, 양가성은 본인의 의견은 물론,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포함하는 점수라는 점에서 두 변인이 구별된다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양가성은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 편견과 마찬가지로 ‘반대 주장’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변인이지만, 극단성의 측정에는 그러한 차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의견 다양성이 반대 의견이나 반대론자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나 본인의 의견 자체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읽기·쓰기와 의견 다양성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온라인 토론에서 의견 다양성이 글을 읽건 쓰건 항상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즉 읽거나 들을 때만이 아니라, 쓰거나 말할 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의견 표현이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예컨대 심리학 분야에서는 반론 옹호(counter-attitudinal advocacy)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러한 경험이 반대 주장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예, Nel, Helmreich, & Aronson, 1969). 그러나 이들 연구는 실제 본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구별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반론 옹호 연구에서와 같이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는 인위적인 상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되 반대 의견을 고려하는, 일상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황에서 의견 다양성의 효과를 검증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반대 의견을 옹호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토론 참여자들에게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이나 근거를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것만으로도 토론이 시민적 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토론 참여자들은 “반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담으라는 간단한 안내문에 노출되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시문을 받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작성한 글의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쓰기 집단의 참여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



을 분석한 결과, 이견을 고려해 글을 읽거나 쓴 집단은 이견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언급하거나 그 근거를 제시한 횟수가 더 많았다. 간단한 지시문에 노출되기만 해도 그 결과물이 이처럼 달라진다는 것은, 인터넷 예절에 대한 학교나 온라인 공간의 지침들이 무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다양성이 유발하는 인지적 효과와 시민적 덕성

〈연구가설 2〉를 검증한 결과 의견 다양성이 반대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미치는 효과를 이견 접근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견을 읽거나 쓴 참여자들은 반대 집단 참여자들보다 더 높은 이견 접근성을 보였고, 이견 접근성이 높은 참여자들일수록 반대론자에 대한 편견이 더 낮았다. 이는 의견 다양성이 ‘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편견은 사람들이 타인이나 외집단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가지고 있는 (대체로 부정적인) 관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 인지, 태도상의 편향을 포함하는데 (D. G. Myers, 2005), 토론 상황에서 의견 다양성이 증가하는 경우 본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반대론자의 주장 또한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편향이 일정 부분 수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의견 다양성이 높은 경우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과 이견 접근성이 모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견 접근성과 공감이 부적인 관계를 보인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사후적 설명이긴 하지만, 편견은 외집단에 대한 정서, 인지, 태도상의 편향을 아우르는 반면 공감은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느끼는 정서적인 현상 (Davis, 1983; Fiske & Taylor, 2008; D. G. Myers, 2005) 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마도 이견 접근성이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다른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일 수 있다. 접근성은 인지 과정의 일부로, 어떤 이슈에 관한 이견 접근성이 높아졌다면 반대론자들의 논거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반대론자들이 단순하다거나 감정적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동시에 외집단과 자신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그들과 공감하기는 더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시민적 덕성의 하위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사전에 구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의견 다양성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 3) 온라인 게시판 토론에서 읽기와 쓰기의 효과

한편 온라인 게시판 토론 참여자들 가운데 글을 쓴 학생들은 글을 읽은 학생들에 비해 이슈에 대해 더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J. W. Myers, 1984), 의견을 표명한 후 자신이 표명한 내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태도가 강화되기 쉽다는 (Lerner & Tetlock, 1999; Pingree, 2007; Tetlock, 1983) 기존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의견의 양가성이나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 편견

에 대해서는 읽기와 쓰기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글을 쓴다고 하여 반대론자에 대한 편견이 증가하거나 글을 읽는다고 해서 의견의 양가성이나 반대론자에 대한 공감감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읽기와 쓰기 효과의 차이를 보고한 선행 연구(김은미·이준웅, 2006; 백영민, 2005)와 달리 본 연구에서 의견의 극단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 대해 읽기와 쓰기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평소의 읽고 쓰기 정도가 유발하는 효과를 측정할 때 반해, 본 논문에서는 한 차례의 읽기와 쓰기가 유발한 효과를 측정했다. 만일 읽기, 쓰기 효과의 크기가 작아 한 차례의 실행만으로는 쉽게 나타나지 않고 누적적인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회적인 실험으로는 그 효과가 탐지되지 않을 것이다. 또, 기존 연구들은 읽기와 쓰기를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거나(나은경·이강형·김현석, 2009; 백영민, 2005; 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기왕의 읽기 쓰기 정도로 집단을 구분하여 종속변인을 비교하는(김은미·이준웅, 2006) 방법을 사용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직접 글을 읽거나 쓰게 하는 실험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자기 응답이 아닌 실제 읽기, 쓰기의 효과를 측정하고 무선배치를 통해 선유성향의 영향력(self-selection bias)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그로 인해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일 수 있다.

또는, 본 논문의 서두에 제기한 것처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읽기와 쓰기의 효과는 읽기나 쓰기 행위 자체가 유발한 것이 아닌, 제3의 요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쓰기와는 독립적으로 의견 다양성을 조작하였는데, 그 결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읽기와 쓰기 효과의 차이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은, 읽기와 쓰기의 효과가 실상 각각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의견 다양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의견 다양성의 효과가 읽기와 쓰기 조건에서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연구의 제한점

이상의 결과를 논의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읽기와 쓰기의 효과를 뚜렷하게 비교하기 위해 이 실험에서는 온라인 게시판 토론 참여 양식을 읽기와 쓰기로 구분, 각 집단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읽기나 쓰기 중 한 가지의 과제만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 토론 공간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또한 글을 많이 읽는 자들이기도 하다(김은미·이준웅, 2006)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가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 글을 쓰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읽기집단 대 읽기+쓰기집단을 비교하지 않고 읽기집단과 쓰기집단을 비교한 것은 현재까지 숙의적 토론 및 온라인 토론 관련 연구에서 읽기와 쓰기(혹은 말하기와 듣기)의 효과가 혼재된 채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우선 이 두 활동이 각각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병행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탐구해볼 만하다.

둘째, 이 실험에는 하나의 이슈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사형제와 달리 관여도가 높은 이슈를 사용했다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성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므로 의견 다양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Pomerantz, Chaiken, & Tordesillas, 1995), 타당한 의견을 접한다면 오히려 동의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Petty & Cacioppo, 1984). 이처럼 다양한 이론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복수의 이슈를 사용했다면 더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실험은 제시된 이슈에 대해 6건의 글을 읽거나 스스로 글을 써야 하고, 이어 이견 접근성 측정을 위한 테스트 및 설문조사가 제시되기 때문에 두 개의 이슈를 사용한다면 참여자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어 하나의 이슈만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사형제라는 특정 이슈의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주제, 이슈를 사용한 재연(replication) 연구가 필요하겠다.

##### 5) 결론: 온라인 속의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이 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온라인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의 심화와 확장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읽기의 긍정적 효과는 사실상 읽는 내용이 담고 있는 의견의 다양성이 보장되었을 때라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토론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교환한다고 해도, 그것이 ‘끼리끼리’의 동아리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선행 연구에서 소개된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의견 다양성이 유발하는 효과가 읽기 뿐 아니라 쓰기에도 적용된다는 결과는 온라인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속의적 토론의 효과에 대한 최근까지의 논의에서 발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Pingree, 2007). 속의와 참여, 혹은 의견 청취와 적극적인 의견 표명은 종종 대비되는 현상으로, 심지어 반비례하는 현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Mutz, 2006).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속의와 참여, 또는 표현과 수용이 상충되는 활동이 아니며, 어떻게 속의하고 참여하는지, 어떤 내용을 읽고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온라인 토론의 효과가 단지 읽는가 쓰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엇을’ 읽고 쓰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능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글쓰기에 앞서 자신과 반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교육,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동윤 (2007).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 의견의 질, 그리고 시민참여: 토론참여와 의견불일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138~167.
- 김용석 · 홍석민 (2009. 1. 15). 0.1%가 댓글 30% 도배... 악플 65%는 욕설-협박. 『동아일보』, p. A1. Available: [http://www.donga.com/fbin/archive\\_dfsrchview?n=D011501457683192](http://www.donga.com/fbin/archive_dfsrchview?n=D011501457683192)
- 김유경 (2001). 『가상공간에서의 정치적 숙의: 가상공간내 정치토론이 의견의 질과 여론과정에 대한 지각,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논문.
- 김은미 · 이준웅 (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65~94.
- 나은경 (2007).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온라인 사회연결망 이질성 인식 수준에 따른 다양성과 민주적 시민태도의 다면적 관계.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163~189.
- 나은경 · 이강형 · 김현석 (2009). 댓글 읽기/쓰기를 통한 온라인 소통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 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과 사회신뢰, 정치신뢰, 언론신뢰, 그리고 정치지식.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 109~132.
- 박승관 (2000).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45권 1호, 162~194.
- 백영민 (2005).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따른 개인성 및 시민성, 정치적 네트워크 참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논문.
- 송현주 · 신승민 · 박승관 (2006).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이견 읽기가 논변구성과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160~183.
- 양혜승 (2008). 인터넷 뉴스 댓글의 견해와 품질이 독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254~280.
-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 총선 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한국방송학보』, 14권 2호, 109~150.
- 이재신 · 이민영 (2008). 댓글 읽기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2호, 249~279.
- 이준웅 · 김은미 (2006).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 토론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393~423.
- 황현서 (2008. 6). 의견 불일치의 소통 : 온라인 숙의민주주의에 있어 시민적 토론 예의 (discussion civility)와 의견불일치 (disagreement)의 역할에 관한 실험 연구발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융합미디어서비스의 확산과 사회 변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와 이용자> 발표논문.
- Batson, C. D., Sager, K., Garst, E., Kang, M., Rubchinsky, K., & Dawson, K. (1997). Is empathy-induced helping due to self-other mer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495~509.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Eveland Jr., W. P. (2004). The effect of political discussion in producing informed citizens: The roles of information, motivation, and elabo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21(2), 177~193.
- Fazio, R. H., & Williams, C. J. (1986). Attitude accessibility as a moderator of the attitude-perception and attitude-behavior relations: An investigation of the 1984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505~514.
- Fishkin, J. S., & Luskin, R. C. (1999). Bringing deliberation to the democratic dialogue. In M. McCombs & A. Reynolds (Eds.), *The poll with a human face: The national issues convention experiment in political Communication* (pp.3~38). Mahwah, NJ: Lawrence Erlbaum.
- Fiske, S. T. (1992). Thinking is for doing: Portraits of social cognition from daguerreotype to laserphot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877~889.
- Fiske, S. T., & Taylor, S. E. (2008). *Social cognition: From brains to culture*(International ed.). New York, NY: McGraw-Hill.
- Gastil, J., & Dillard, J. P. (1999). Increasing political sophistication through public delibe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 3~23.
- Hwang, H., Gotlieb, M. R., Nah, S., & McLeod, D. M. (2007). Applying a cognitive-processing model to presidential debate effects: Postdebate news analysis and primed ref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40~59.
- Krosnick, J. A., & Smith, W. R. (1994). Attitude strength. In V. S. Ramachan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Vol. 1, pp. 279~28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azarsfeld, P. F., Berelson, B., & Gaudel, H. (1944).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rner, J. S., & Tetlock, P. E. (1999).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account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55.
- Min, S.-J. (2007). Online vs. Face-to-face deliberation: Effects on civic engagement.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1369~1387.
- Mutz, D. C. (2002).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838~855.
- Mutz, D. C. (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yers, D. G. (2005). *Social psychology* (8th ed.). New York: McGraw-Hill.
- Myers, J. W. (1984). *Writing to learn across the curriculum*. Bloomington, IN: Phi Delta Kappa.
- Oskamp, S., & Schultz, P. W. (2005). *Attitudes and opinion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Petty, R. E., & Cacioppo, J. T. (1984). The effects of involvement on responses to argument quantity and quality: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69~81.
- Pingree, R. J. (2007). How messages affect their senders: A more general model of message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deliberation. *Communication Theory*, 17(4), 439~461.
- Pomerantz, E. M., Chaiken, S., & Tordesillas, R. (1995). Attitude strength and resistanc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408~419.
- Price, V., & Cappella, J. N. (2002). Online deliberation and its influence: The electronic dialogue project in campaign 2000. *IT & Society*, 1(1), 303~329.

- Price, V., Cappella, J. N., & Nir, L. (2002). Does disagreement contribute to more deliberative opinion? *Political Communication*, 19, 95~112.
- Scheufele, D. A., & Tewksbury, D. (2007). Framing, agenda setting, and priming: The evolution of three media effects models.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9~20.
- Tetlock, P. E. (1983). Accountability and complexity of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74~83.
- Tormala, Z. L., & DeSensi, V. L. (2008). The perceived informational basis of attitudes: Implications for subjective ambival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2), 275~287.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4157), 1124~1131.

최초 투고일 2009년 12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월 18일  
논문 수정일 2010년 1월 28일

# Effects of Reading, Writing, and Opinion Diversity in Online Discussion

Yoon Jae Jang

Ph.D. Candidate, Dep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un-Ju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 research concerning online discussion has found that reading others' posts produces differential effects on participants' civic virtues than writing one does, and explained such differences in terms of the exposure to diverse opinions. To examine if opinion diversity indeed accounts for why reading and writing yield different outcomes, we systematically varied opinion diversity in each participation mode and tested if counter-attitudinal argument accessibility mediates the effects of opinion diversity. A total of 185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a 2 (participation mode: reading vs. writing) x 2 (opinion diversity: high vs. low) between-subjects design experiment. Consistent with the hypotheses, participants in the high (vs. low) diversity condition showed more ambivalent opinions, greater empathy and lower prejudice toward their opponents. No significant interactions were found between participation mode and opinion diversity, suggesting that it was what people get exposed to while reading and writing, rather than the acts of reading and writing per se, that led to different results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e effect of opinion diversity on prejudice against the opponents was mediated by the counter-attitudinal argument accessibilit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Deliberative Democracy, Opinion Diversity, Online Discussion, Reading, Writing